

재일민단 본국 방문단 접견

단장님이 말씀했는데 깜박 잊고 박수를 못 쳤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시고 특히 청와대를 방문하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환영합니다.

몇몇 분들은 개인적인 기회에 인사를 드렸고,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공식적인 기회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청와대에 오시기로 했는데 사스 때문에 방문을 허락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규칙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재일동포들의 삶의 역사나 조건이 국내와 같지 않습니다. 무엇을 고심하고 있는지 희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처음 경제개발 출발할 때 많은 도움을 주고, 그때 참여해주신 것이 우리국민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걱정해주시고 가능한 한 국가발전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 일본에 사시는 동안 이루어야 할 숙원사업에 대해 정부가 이루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런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본을 가게 되니까 좋은 도움의 말씀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